

“불교교류 위해 노력”

장원삼 스리랑카 대사 17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 예방

장원삼 신임 스리랑카 한국대사가 4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의 활발한 불교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서 자승 스님은 “종단은 스리랑카가 조계종 마을과 조계종복지타운을 운영하고 있다. 양국 불교 교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원삼 대사는 “부임은 하면 꼭 조계종 복지시설을 찾아가 보겠다”며 “스리랑카는 국민의 70%가 불자이고 현 대통령 역시 독실한 불자로 불교중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불교계의 교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질지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장원삼 신임 스리랑카 한국대사가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양국의 활발한 불교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대 붓다상은 어떻게 정립되나

조계종 24일 교육아사리 포럼

이 시대 붓다상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붓다관’을 주제로 제6차 교육아사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결사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붓다로 살자’라는 의미를 고찰하고,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참여불교의 시각에서 붓다를 어떻게 바라보며, 현대 사회에서 붓다는 어떤 모습으로 정립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이 ‘종도론을 통해 본 본래붓다와 동체대비행’으로 기조 발제를 하며, 교육아사리 각목스님이 ‘초기불교의 붓다관’에 대해, 현석스님이 ‘대승불교의 붓다관’에 대해 발표한다. 또 영석스님이 ‘선불교의 붓다관’에 대해, 금강스님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붓다상’을 주제로 발제한다.

한편 교육원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격월로 사회 현안 및 불교적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계종 교육아사리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선거제도 변화 ‘공감’... 변화 방안은 ‘제각각’

조계종, 16일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매번 거듭되는 선거에서 참권과 매관매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종도들의 대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4월 16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 것도 선거제 변화를 요구하는 종도들의 공의를 모으기 위해서다.

현행 선거, 종도 의견 반영 못해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대중들은 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해 공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 스님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출가 수행자로서 기본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종도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스님은 “종도들은 행정 수장인 총무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기본 권리 제약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참중권이 제한된 수행자들의 경우에는 종단 운영에 대한 무관심 확산, 애중심이 저하되며 종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제충할 통로와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단 구성원이 직접 종단 운영에 참여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종단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종단 역량 강화를 의미한다”며 “종단의 시스템과 제도 개선은 종단

개혁의 연장선상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정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제기된 선거 방안은 △집행부가 제시한 준직선제 △완전 직선제 △원로회의가 제안한 선거인단 축소 △완전 추대제 △결사추진본부의 제안인 선추천, 후선출 등 5가지이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5가지 방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준·완전 직선제·선거인단 축소 추대·선추천 후선출안 등 제안

본사 주지, 현 간선제 유지 주장

총책 모임들 ‘법계 제한’ 직선제

비구니 스님 ‘완전 직선제 시행’

“선거제도 폐해 많아 추대 필요”

30여명 참여, 관심 부족 아쉬움

법계 제한 직선제나 추대제나

특히 토론에서는 법계 제한 직선제와 추대제에 대한 주장과 제안들이 나왔다. 중앙종회 총책모임 불교광장 총책위원장 만당 스님은 “종단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3천여 말사”라면서 “말사 주지는 10년차 중덕·정덕 법계부터 가능하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4월 16일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요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진행한 종합 토론 모습.

완전 직선제보다는 법계를 제한해 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비구니 스님들에게 동일 선거권을 주는 부분에서는 모임 내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당 스님은 개인적인 주장임을 전제하며 “추대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현재 조계종은 선거가 망치고 있다. 원로, 중진 스님으로 구성된 종단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총무원장부터 교구 본사 주지들을 선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화도량 삼화연구소장 법인 스님은 “선거의 5대 원칙인 보통, 자유, 평등, 비밀, 직접 선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종단 상황의 감안해 법계 제한은 있어야 하되 일정 법계 이상의 스님들은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쇄신위원회가 제시한 선추천 후선출 방

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스님은 “추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증 시스템이 확실해야 한다”면서 “소위 법석을 만들어 후보자에 대한 정밀한 사고와 사상, 가치관 등을 대중들에게 검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의원 중 유일하게 참여한 암도 스님은 추대제를 제시했다. 암도 스님은 “가톨릭이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은 것은 수장을 추대하기 때문”이라며 “선거제도가 종단에 끼치는 폐해가 어마어마하다. 종교집단이 시대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해도 선거제도는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구니 선거인단 확대 문제인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직선제 논란 중 하나는 ‘비구니 선거인단 확대’였다. 준직

선제안을 제시한 총무부장 종훈 스님은 “현실적 부분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 직선제는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종단 참여 비율이 20% 수준인데 25%로 늘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구니 대표로 참여한 중앙종회의원 일운 스님은 완전 직선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준직선제부터 추대제, 선추천 후선출 방안 모두 비구니 참중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운 스님은 “2013년 불교미래사회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는 75%가 일정 승납 이상의 구족계를 수지한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직선제를 찬성했다”면서 “준직선제는 비구니 차별이며, 선거인단 축소는 평등권 위배이며, 선추천 방안은 비구니 참여를 축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종단의 역량으로 구족계를 받은 모든 승려들이 참여하는 직선제의 진행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투표 기술의 발전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절차가 힘들고 복잡하다는 것은 비구니를 차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본사 주지 대표로 참석한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기존 간선제 유지를 의견으로 내놨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회는 공청회 이후 각계 의견들을 더 수렴해 5월 경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에 열릴 중앙종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재가불자 위한 수행 입문 길라잡이

조계종 불교사회학, ‘수행체계 연구서’ 발간

불교의 수행은 참선과 명상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다보니 초심자는 어떤 수행을 어떻게 시작할지 망설이고 고민하기 마련이다. 수행을 처음 접하는 재가불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서가 나왔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최근 수행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인 <재가불자를 위한 수행체계 연구>(사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행에 입문하는 재가불자들의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초심자의 관점에서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체계적으로 불교 수행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 2011년 수불스님이 후원한 수행연구기금을 바탕으로 수행체계 연구를 실시해왔으며, 연구소가 실시한 2013년 한국의 사회·경제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일반인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프로그램의 개

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이번 보고서 발간을 추진해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계종 수행 근간인 간화선의 수행의 목적과 간화선이 등장하게 된 배경, 간화선 수행 구조를 상세히 기술했다. 또 화두의 정의, 화두를 살피는 방법, 의심을 일으키는 방법, 의심이 익어가는 과정, 화두의 타파, 인가의 획득, 점점 및 지도 등 7단계로 간화선 수행의 구조를 분석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위빠사나 수행에 대해서도 위빠사나 수행의 목적과 수행체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다양한 수행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간화선과 대승불교 수행, 위빠사나에 대한 논쟁과 수행 흐름, 공금점 등을 별도로 ‘Q&A’ 코너에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은 “불교는 수행의 종교로 불릴 만큼 유구한 전통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가난 없는 곳에서 행복하길”

조계종 노동위, 15일 송파 세모녀 49재 열어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삶을 스스로 포기한 송파 세 모녀의 49재를 맞아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작은 행사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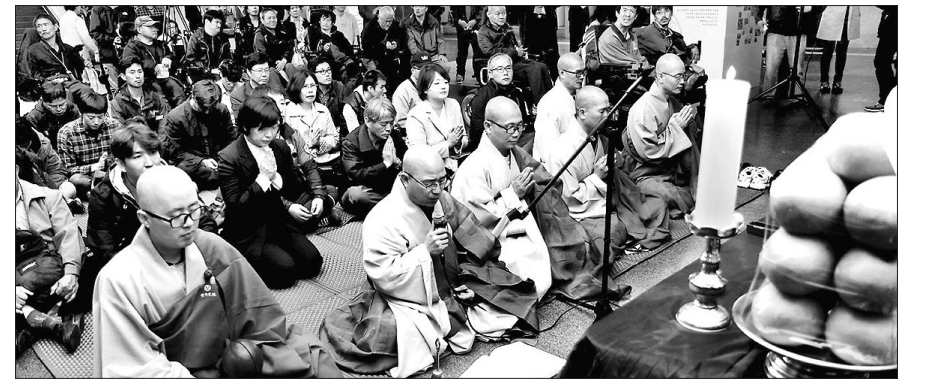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4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장애인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 세 모녀 49재를 봉행했다.

종호 스님은 49재에 앞서 “지난 2월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49일을 맞아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종호 스님은 “송파 모녀처럼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4월 15일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 송파 세 모녀 49재를 봉행했다.



부산 연등축제

Busan Lotus Lantern Festival
釜山燃燈祝祭

불기 2558(2014년)
4. 18(금) ~ 4. 27(일)

전통문화체험 및 대형등 전시
13시~21시



홈페이지 : bba48.or.kr / www.bba.or.kr

부산연등축제 개막·점등식(점등시간 : 19시~24시)
- 4월 18일(금) 오후 6시 용두산공원

BBS부산불교방송 공개방송
- 4월 19일(토) 오후 5시~6시 30분 용두산공원

제7회 전국비보이 배틀경연대회
- 4월 20일(일) 오후 1시 30분(예선)
3시(본선) 용두산공원

봉축연합대회 및 연등행렬
- 4월 26일(토) 오후 4시(봉축연합대회)
7시(연등행렬) 부산구덕종합운동장